

Interview

용인시

서정석 용인시장

Interview

서/정/석 용인시장



촬영/정리 • Willy기자

▶ 역동적인 시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중임에도 우리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지와의 인터뷰에 응해주신 용인시 서정석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용인시의 규모와 현황, 그리고 비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용인은 도·농 복합도시입니다. 지명 탄생 600년을 눈앞에 둔 고도(古都)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게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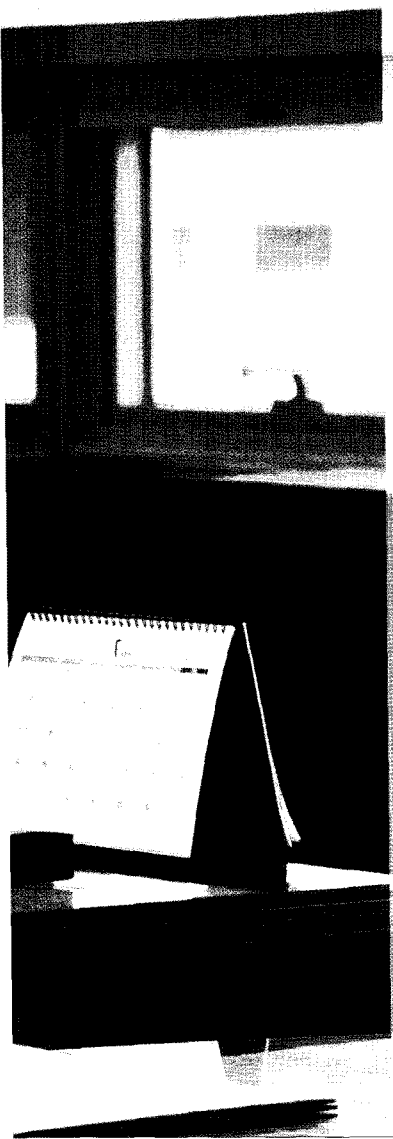
빠르게 도시화되면서 최근 5년간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8.8%에 달하는 전국 최고의 관심지역으로 2008년 10월 말 기준 총인구는 829,94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남북으로 통하는 길목으로 교통의 요충지였고 오늘날에도 경부·영동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어 동서와 남북을 잇는 분기점으로 중요한 지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인시 관내에는 10개의 대학, 1,521개 기업체, 68개 연구소와 34개 연수원이 자리하고 있어서 첨단산업도시, 신진교육도시로 발전하기에 유리한 여건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산수가 수려해 연간 1,200만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휴양도시로 한국민속촌과 에버랜드, 골프장 26개소, 휴양콘도 5개소 등 관광객저 명소가 지역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화의 기반도 탄탄해서 크고 작은 15개 박물관·미술관을 문화도시로서의 용인의 품격 있는 면모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민선4기 시장은 용인시의 이러한 여러 장점과 인프라를 잘 살리기 위해 '세계최고 선진 용인 건설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용인을 명품도시로 발전시키는 여러 시책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농이 균형 발전하는 친환경생태도시, 삶의 질 높은 행복도시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용인시는 예로부터 풍부한 문화유산과 수려한 자연환경을 갖춘 전원과 문화가 함께하는 살기 좋은 도시로 알려져 왔습니다. 민선 4기 시장으로 취임하신 서정석 시장께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발전방향, 또한 추진하신 업무 중 대표적인 사업과 성과 몇 가지를 소개해 주신다면.

- 취임 후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라면 용인의 오랜 고민이라 할 수 있는 동서 균형 발전의 질마리인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과 이를 위한 각종 준비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2008년 4월 수질오염총량제가 환경부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동부권 개발을 위한 사



Interview



업들에 탄력을 받아 균형발전의 기틀이 마련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맑은 물 보전과 계획적 개발을 병행해 친환경적 도시개발 구현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용인시는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지난해 7개 지역에 배수설비를 신설, 보수하는 사업을 진행했으며 내년에도 민간투자사업으로 하수처리지역 2곳을 추가로 선정 받아 총 9개 구역 278.6km에 달하는 하수관거를 신설, 보수해 오·폐수의 누출을 줄일 예정입니다. 하수처리시설까지 이어지는 하수관거를 정비하고 하수처리시설도 현재 13곳이 설치 중인데 수지, 상현, 고매, 원삼 등 5개소가 준공을 앞두고 시험 가동중에 있습니다. 이들 하수처리시설이 확충되면 하천과 지하수의 수질 개선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해 체결한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2010년 말까지, 내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은 2012년경 완료할 예정입니다.

하수관거와 하수처리시설 등 물 맑게 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경안천, 금학천, 오산천, 성복천, 정평천 등 5대 하천 정비 역시 중요한 사업으로 하천 정비는 홍수방지와 수질개선, 생태하천 복원 등을 목표로 진행하는데 수질개선 뿐만 아니라 자전거도로, 산책로, 인공습지, 자연학습장 등 친수공간이 마련돼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5대 하천 정비사업은 2010년 말 경 마무리될 예정으로 청계천이 서울시민들의 산책공간으로 자리 잡는 것이라면 용인시의 5대 하천은 용인시민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이 될 것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와 물을 맑게 하는 다양한 사업들은 동부권 균형 발전과 꿰래야 땔 수 없는 동전의 양면 같은 것으로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들은 한꺼번에 추진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2020용인도시기본계획을 승인받아 120만 명 계획인구와 용인시 5개 권역의 특색있는 발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어 동부의 포곡·모현 전원형 문화복합단지, 남부의 이동면 덕성산업단지, 남부의 남사면 북리공업지역, 남사 복합도시 조성, 행정타운 주변 상업지역 개발과 구시가지 환경개선사업, 하천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 결과는 빠른 시간 내 나타나지 않겠으나 친환경, 자연보존을 중심으로 진행해 어느 도시보다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현재 모든 사업의 화두는 '그것이 지속가능한 것인가'입니다. 용인시가 그간 비약적인 발전을 해 온 것은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발전을 지속시키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요.

- 도시도 생명이 있는 유기체와 다름없습니다. 유기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영양분을 고루 섭취해야 하듯이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자연과 인간, 경제와 복지가 고루 어우러져 삶의 질이 높은 도시로의 발전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친환경적인 발전 모델과 산업기반은 지속가능한 자족도시 건설에 필수 여건입니다. 그동안 일각에서 용인이 급성장하면서 기반시설 없는 삭막한 아파트 밀집도시로 베드타운화 된다는 우려가 있어온 게 사실이나 2007년 초 당시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받은 2020용인도시기본계획안과 금년 4월 환경부의 승인을 얻은 수질오염총량제의 시행에 따라 2020년을 목표로 120만 인구에 대비한 도시 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지·기흥·용인·남이·백원 등 5개권별 생활권에 대한 차별화된 도시발전 모델을 만들어 자족기능을 갖춘 매력적인 친환경 도시로 탈바꿈하는 사업 추진에 힘을 쏟고 있고 자족기능을 갖추기 위한 신성장 동력 창출의 3대 전략으로 첨단 IT산업, 친환경농업,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이동덕성산업단지, 남사북리공업단지, 서천택지개발지구 내 IT집적시설, 죽전 디지털밸리 등 조성사업, 프리미엄급 백옥쌀 생산단지 및 현대식 원예유통센터 운영, 농촌체험마을 육성, 용인농촌테마파크 확충 운영, 상갈동 일원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등을 주요 시책사업으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 **서정석 시장께서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건설교통부와 국토관리청에서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는 등 주택과 도시문제에 관한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경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 및 이의 해결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용인시에는 시급히 처리해야 할 당면 과제가 많습니다. 이미 언급한바와 같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과 시민정주의식 불분명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용인시는 수도권 정비계획상 자연보전권역과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원화 돼 있고 동부권은 각종 규제가 심해 개발에 어려움이 있어왔으나



Interview

수질오염총량제를 도입해 일부 동부권 특성을 살리면서 전 원형 문화복합단지 조성, 테마형 농촌마을 육성, 산업단지 조성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 이후 용인시 전입자가 시민의 63.4%를 차지하는 상황으로 시민들이 용인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용인시만의 특색을 살리는 전략적 브랜드 사업이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축제, 용인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지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선 내년 하반기로 예정하고 있는 용인경전철의 개통과 운행, 5대 하천공사의 준공 등이 용인 시민들에게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돼 시민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부당선연장선, 신분당선 등 광역교통망 사업에 대한 협력과 지원, 도로망 개선, 도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계획적 개발, 복지 도시로의 성장 등 여러 면에서 균형을 맞춰 사업을 끌어가는 것 등을 시급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경제 상황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소비 축소, 이로 인한 기업 경영난과 고용감소 등 여러 문제가 맞물려 있어 쉽사리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경제전문가들조차 해결책보다 경제 위기에 대한 준비와 대응 밖에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분야에 대한 비전문가인 제가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다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현 상황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 없이 정책에 대한 비판과 비판만 하는 것 같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가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언론에서 이를 부추긴 면도 없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잘잘못을 가리는 것도 중요한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불이 난 집의 불을 끄는 것, 가라앉은 배에서 함께 탈출구를 모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 대책에 힘을 실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 불을 냈는지, 누가 배를 가라앉히는지 찾고 추궁하는 것은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지도층의 리더십도 아쉽고, 국민들의 관용도 아쉬운 시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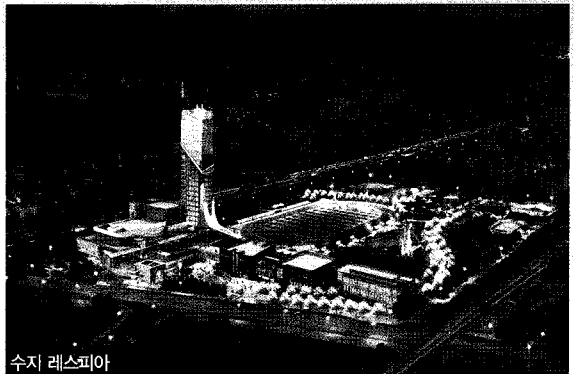
획기적인 경제난 해결책은 아니겠으나 우리시에서는 기업인과의 간담회, 건설사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들의 고충 해결을 위해 여러 모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지역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한 해외 박람회와 통상촉진단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기업들이 새로운 판로를 마련하고 건설해져갈 때 지역 경제도 튼튼해질 것이라 여겨 시비로 통역비, 항공료, 부스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이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용인시에 건설한 기업들이 뿌리내리게 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 **현재 미국 발 금융 위기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경제 위기에 처해 있고 그 영향으로 실물 경제 추락의 고삐를 겪고 있습니다. 용인시의 경우 그간 버블 세븐 지역의 한 곳으로 집값 상승을 주도해 온 지역이었으나, 현재는 많은 시민들이 집값 하락 등으로 인한 충격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부동산 및 건설 경기는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것으로 경제와 민생의 핵심입니다. 경제 불안심리가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면 계층 간 위화감 없이 함께 위기를 극복해나가야 잘 살 수 있다는 공동체 의식과 연대감이 필요합니다.



용인시장



수지 레스피아

용인시장에 취임하면서 부동산 버블 발생을 방지하려고 분양가 제한을 하는 등 강력한 행정지도를 해 왔습니다. 향후 업체에서도 적절한 가격에 분양을 하고 우리시에서도 부족한 도시기반시설 등을 확충해 투자여건을 개선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3일 정부는 경제난국 극복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및 건설 경기 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건설사 유동화 지원, 과도한 규제 완화, 가계부채 기간 연장 및 만기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대책이었습니다. 이번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협조가 필수적으로 보이며 정부의 대책 이행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도 지난 11월 12일 건설사업자와의 간담회를 개최, 용인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상과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건설인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했으며, 용인시 발전은 물론 국가 건설 및 경제 발전을 위한 힘을 모으자고 하였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도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할 것입니다. 돈 안 드는 경기 부양책으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하루 빨리 실질적인 규제 완화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나마 투자 여력이 있는 용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기업 활동을 장려하는 국내여건 조성에 적극 앞장 서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용인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 활성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 지역 중소기업들이 지역 경제의 뿌리가 된다는 생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시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기업 SOS지원단 운영으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 지원, 시장 개척과 홍보활동 지원, 해외박람회 비용 지원과 규제개선 과제 발굴 등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근본적으로 용인이 베드타운이 아니라 주거와 연구, 업무가 복합적으로 이뤄지는 자족형도시가 될 수 있도록 남사복합도시 개발사업, 도심지내 공장을 산업단지로 이전해 집적효과를 높이고 계획적으로 도시를 정비할 수 있는 덕성산업단지 조성, 첨단 지식산업과 IT산업 육성을 위한 서천지구 내



용인시의 비전을 밝히고 있는 서정석 용인시장

용인시 IT집적시설, 축전디지털밸리, 포곡·모현 전원형 복합주거단지 조성 등 계획적 도시정비와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인시가 도농복합시인만큼 농축산업에 대한 진흥책도 추진 중으로 우리시에서는 원예특작분야에 대한 시설현대화, 현대식 원예유통센터 건립, 위성건조 저장시설 확충 등 자립형 농촌 육성과 함께 도-농 교류 활성화, 농촌체험마을 육성, 축산환경 개선사업, 우리랜드 확충,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생산기술 보급 등을 해오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시설 현대화, 브랜드화를 통한 차별화, 관광농업, 안전한 고품질 먹거리 공급을 위한 연구 및 시설 확충,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이 우리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 살고 싶은 이상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과 규모의 확대뿐만 아니라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화적 요소가 점차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적 요소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시장님의 전략이 있다면.

Interview



- 최근 용인지역 내 문화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용인을 연중 공연이 계속되는 문화예술도시로 만들기 위해 수준 높은 기획공연을 유치하고, 전통예술을 진흥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개청 당시 호화청사라고 비난받았던 용인시 문화복지행정타운은 2년여 만에 용인문화를 선도하는 문화 메카로 뿌리내렸고 문화예술원 내 공연장과 지자체 최초의 전자도서관인 디지털정보도서관이 수준 높은 문화공간으로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청사 안에도 갤러리, 공연무대를 설치해 음악과 미술이 함께하는 공공청사로 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용인시에서는 문화경쟁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백남준 아트센터 및 경기도박물관 일대 상갈동 일원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상갈동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10월 타당성 연구 용역을 마치고 현재 세부계획 수립 중으로 향후 조성이 완료되면 퐁파두센터가 자리한 프랑스 파리의 보부르 거리처럼 세계 문화예술의 새 조류를 창조하는 국제적인 문화자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3년 완공을 목표로 기흥구 하갈·공세·고매동 일원에

조성되는 기흥호수공원 내에는 대규모 문화시설지구가 세워 지는데 1500석 규모의 오페라하우스, 800석의 콘서트홀, 500석의 소극장 외에 아이음극장, 문화예술 영재를 발굴해 육성하는 교육시설인 문화아카데미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용인을 대표할 만한 문화 허브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지요. 이밖에도 우리 용인시에는 역사, 문화, 관광을 접목한 용인시만의 차별화된 문화 경쟁력을 강화시켜나갈 수 있는 인프라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화예술 관련 소프트웨어를 적극 활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신성장 동력으로 삼을 방침입니다.

매년 세계최고의 살기좋은 도시를 발표하는 Mercer Consulting 자료를 보면 세계적 대도시인 뉴욕, 런던, 파리 등 유명도시는 없습니다. 특히 미국 도시 중에는 25위 내에 든 도시조차 없습니다. 교통체증, 공해, 범죄율, 치안, 안전도, 도시 정책의 효율성 등을 참고했다고 합니다. 올해의 경우 1위는 스위스 취리히, 2위 오스트리아 비엔나, 3위 스위스 제네바, 4위 캐나다 밴쿠버, 5위 뉴질랜드 오클랜드였습니다. 이러한 도시와 비교해 볼 때 용인시가 가진 장점



백남준 아트센터



죽전 디지털벨리

과 당면하고 있는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 용인시는 장점이 매우 많은 도시로 수도권 남부의 최대 핵심도시이자 빠른 인구 성장률에서 볼 수 있듯 인구가 급증하는 도농복합도시이며 교통 요충도시이자 전통과 현대문화가 어우러진 선진 교육문화 도시입니다.

교통체증과 공해, 범죄율, 치안, 안전도, 도시정책 효율성 등을 참고해서 살기 좋은 도시를 선정한다면 우리 용인시도 머지않아 살기 좋은 도시에 들 수 있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용인경전철이 2010년 초에는 운행할 수 있을 것이고 분당선 연장선이 구갈역까지 2011년까지 연결될 것입니다. 광역교통망에 대한 보완은 교통체증을 크게 감소시킬 것입니다.

한편, 우리시에서는 이산화탄소 감축 노력을 위해 수지소각장 소각수열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 수지 소각장에서 쓰레기를 태우면서 발생하는 폐열을 지역 난방공사에 공급해 온수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화석 연료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절감하는 이산화탄소 양이 연간 7,503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오·폐수 정화를 위한 하수처리시설 확충, 하수관거 설치와 정비 등도 생활환경을 쾌적한 곳으로 만드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치안, 범죄율, 안전도 등은 관할 경찰서에서 주요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 사안이나 우리시에서도 경찰서와 협조해 지난해 10월 방범CCTV 종합 상황실을 개소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 15억여 원을 들인 것으로 77개소에 설치된 방범용 폐쇄회로 카메라들을 24시간 모니터링 해 도로와 공원, 주택가 골목 등 범죄 다발지역, 다수 민원 지역 등 취약지역의 범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의 장점은 도농복합도시로 다양한 지역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한편 교통 요충지로 동서, 남북으로 접근성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에버랜드와 한국민속촌, 경기도국악당, 백남준 아트센터, 15개 박물관과 미술관 등 문화휴식 공간과 한택식물원, 우리랜드 등 자연체험공간, 26개 골프장 외에도 스키장, 뉴시터 등 위락시설이 많은 관광문화도시입니다. 문화, 관광, 휴식, 환경 등의 인프라에서 용인만큼 여러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은 세계적으로도 드물다고 봅니다. 아직 우리 용인시가 세계적인 일류도시들에 비해 부족한 점이 있으나 교통이나 교육 등 시민들이 원하는 인프라 구축에 중점적인 노력을 기울여 빠른 시간 내에 세계 명품 도시로 태어나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도록 발전시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를 통해 세계최고 선진용인을 시정이념으로 매진하고 있는 용인시 서정석 시장님의 전략과 발
전방향에 대해 궁금했던 시간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주신 서정석 시장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용인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합니다.

-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는 대한민국 건설안전분야 최고의 역사와 능력을 갖춘 기관으로 과거부터 관련 업무를 진행하며 유대관계를 맺어오고 있습니다. 관련분야 최고의 전문지로 성장한 협회지에 우리시정을 소개하는 기회를 갖게 되는데 대해 한경보 회장과 협회 임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와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가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협력관계로 지속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